

세계화와 90년대 중국 지식인의 대응*

- ‘자유주의’와 ‘신좌파’를 중심으로 -

박 승 현 (중앙대)

주제분류 중국철학 중국현대문화

주요어 세계화, 현대화, 신좌파, 자유주의

요약문

중국 정부가 개혁개방 이후 20여 년 간 여러 가지 굴곡을 거치면서도 굳건히 지켜온 원칙은 바로 시장화라는 전면적인 체제전환의 길이었다.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이념은 바로 세계화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이다. 중국도 이러한 세계화의 조류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현재 중국의 공산당 정권을 지탱하는 이념은 표면적으로 여전히 사회주의다. ‘중국적 특색’은 더욱 강조되어졌지만 ‘사회주의’의 내용은 나날이 약화되어 지금 현재 그 이름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1990년대 후반 중국의 시장경제화, 자본화의 논리에 적극 동조하는 ‘자유주의’와 이에 대해 강력한 비판세력으로 성장하였던 ‘신좌파’의 주장을 중심으로 90년대 중국 지식인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시장경제체제로 사회가 재편되어져 가는 당대 중국의 현실에 대한 지식인들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심에 ‘자유주의’와 ‘신좌파’의 논쟁이 자리하고 있다. 신좌파는 현재 중국의 당면 문제는 ‘현대화(시장화)의 불충분함’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며, 사회주의 역사적 경험과 목전의 ‘현대화’가 갖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결합하여 체도를 새롭게 만들어낼 계기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주의는 현재의 문제는 시장에 대해서 국가의 권력이 지나치게 관련한 탓에 생긴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체도를 개혁하고 더욱 철저하게 시장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본 논문은 학술진흥재단 2002년도 기초학문육성지원 사업에 의해 지원되었음.
과제번호: KRF-2002-072-AM2014

1. 문제제기

현재 중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에서 약진하고 있는 ‘한류’라는 현상,¹⁾ 한반도의 북핵 위기극복을 위한 외교적 협력, 다양한 방면에서 경제적 투자와 협력 그리고 ‘고구려사 왜곡’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東北工程’²⁾ 속에 숨겨진 중국의 패권주의적 경향 등등, 중국에 대하여 긍정적 측면이든 부정적 측면이든 간에 양국 간에 교류가 빈번할수록 ‘오늘날 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금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현대 중국의 변화 양상과 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전개하고 있는 국가전략과 그에 따른 사회 체제의 변화, 그리고 문화적 사상적 흐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흐름이 바로 ‘세계화’이다. 자본, 재화, 정보, 문화가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으로 손쉽게 교류되고 확산되고 있으며³⁾,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형성, 금융체

1) ‘한류’라는 현상도 단순히 한국 대중문화의 질적 우수성이나 문화적 근접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사회주의 중국이 외국의 대중문화를 받아들일게 되기까지는 여러 차원의 준비가 필요했었는데, 외국문화를 철저히 배척했던 문혁시기로부터 가장 자본주의적인 상품의 하나인 외국 대중문화의 대량 유입이 있기까지 중국사회는 복잡한 사상적 논쟁과 문화적 굴곡을 거쳤다. 한류 현상은 그와 같은 시대적인 변화와의 조응 속에서 생성된 것이었으며, 따라서 한류가 중국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문화의 내적인 변화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韓流의 배경으로서 1990년대 이후 중국 현대 문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파악하고자 기획되었다.

2) ‘東北工程’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의 줄임말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 동북 변강 지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일련의 연구작업을 뜻한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의 이 프로젝트는 중국사회과학원 소속인 ‘邊疆史地研究中心’이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 이 속에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 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2003년 여름부터 한국의 역사학계는 물론 나라 전체가 떠들썩하였다.

3) 이른바 韓流현상도 단지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 이미지 고양 혹은 국가정체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시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객관적 입장에서 신자

제의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는 국민국가를 넘어 전개되며, 그 가장 두드러진 분야가 경제적 세계화이다. 그러나 세계화는 이미 경제 영역을 뛰어 넘어 우리의 삶 전체로 확산되었고 무엇보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時空의 개념을 급진적으로 변화시켰다. 지구 저쪽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이제 전보다 더 직접적으로 또 즉시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 특히 경제적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⁴⁾ 사실 오늘의 세계는 신자유주의의 힘 아래 모두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도 아시아의 유가 문화 속에서 형성된 자본주의도 능력과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위력 앞에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⁵⁾ 그러므로

유주의 주도의 세계화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맹변화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천적으로 중국, 한국, 일본의 유행문화가 아시아 지역에서 서로 교류하고 융통된 것이 바로 全球化 형식 중의 하나이며 동시에 서방의 문화제국주의와 문화패권에 대항하는 형식의 하나이다”(『전지구화/보균문화와 아시아 청소년의 집단적 열광』, 『오늘의 문예비평』, 2002 여름, 126쪽) 이러한 관점은 조한혜정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한다. “‘한류’에 대한 연구는 아시아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중문화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역사적 계기로 인식되었고, 이를 통해 문화산업의 거대 자본화와 서구 중심성에 대한 대안적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실제로 1990년대 이후 아시아의 젊은 층에서 소비되는 대중문화는 자국 문화와 서구 문화, 또는 다른 아시아 지역의 문화가 ‘혼성’의 형태로 각 지역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뒤섞이고 엇갈리면서 새로운 현대성을 창출해 가는 과정에서 생산된 것이다.”(조한혜정 외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 서문 5쪽)

- 4) 신자유주의 정책은 케인즈주의/사민주주의적 정책에 대한 비판명제로서 1970년대 중반 이래의 세계구조공황을 배경으로 하여 경제적 사상적,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였는데, 핵심사상은 시장과 이윤운동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입을 철폐하고 사적 자본과 시장에 자본주의의 재생산의 조절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성구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공세」,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5쪽 참조)
- 5) 세계화의 중심에 서 있는 미국 대중문화의 확산에 대하여 다양한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프랑스 문화부 장관인 자크 랑은 “막대한 금융 집단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의한 전 지구적인 문화적 균질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인가? (중략) 혹은 진실은 그보다 더 암울할 것인가. 인공위성이 높이 뜰수록 문화 수준은 낮아지는가?” 라고 반문하고 마지막으로 그는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적 형식의 소멸은 오늘날 커다란 위협이다.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전개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싫든 좋든 우리가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물결이라고 할 수 있다.⁶⁾

중국도 이러한 세계화의 조류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지난 20여 년 동안 비록 굴곡은 있었으나, ‘시장화’라는 전면적인 체제 전환의 길을 걸어 오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세계경제의 흐름에 합류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오고 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이 그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2008년 올림픽유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대외적 개방의 정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아울러 각 사회영역에서 점차 시장원리가 지배적 위치로 자리 잡아가고, 국유기업의 사기업으로의 전환과 그에 대한 소유제 개혁과 구조조정 그리고 세계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개편 등이 이루어지면서 실업이나 빈부격차 등 지역적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척되고 있으며, 또한 도시 청년들은 정치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가체제의 내적 전환과 사회적 기본 구조의 변화에 접하면서, 90년대에 들어 중국의 지식계에는 여러 차례 큰 논쟁이 있었다. 이는 대부분 다 세계화라는 강력한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말할 수 있다.⁷⁾ 그 대표적인 것이 중국 현대사의 ‘급진’과 ‘보수’에 관한 반성과 논쟁(1992-1993년), 그리고 대중문화의 상업화 경향과 지식인의 영합과 타락에 대한 반성으로 ‘인문정신’의 타락에 대한 논의를 벌인 ‘인문정신 토론’(1993-1995년)⁸⁾과 90년대 후반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장기간 관료

다양성은 뿌리도 영혼도 색깔도 취향도 없는 국제적 대량 문화에 의해 대체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윌터 레이퍼버, 『마이클 조던, 나이키, 지구 자본주의』, 문학과 지성사, 143쪽 참조)

6) 김영삼 정부가 처음 제시한 ‘세계화 비전’은 다분히 21세기를 겨냥한 장밋빛 청사진을 담고 있었다. 거기에는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가 깔려 있었다. 그러나 왜곡된 경제 구조를 혁파하지 않고, 그 틀 위에 어설프게 적용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끝내 IMF위기를 불러왔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 즉 부의 집중과 사회 양극화 현상 등도 WTO체제 즉 신자유주의를 바탕 아래서 전개되는 무한 경쟁의 힘의 논리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 王超華편, 『고뇌하는 중국』(원제 : *One china, Many paths*, 장영석역), 23쪽 참조

자본에 독점되어온 생산 자원을 어떻게 공개화 합법화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벌인 ‘신좌파와 신자유주의 논쟁’(1997-2000년)이라고 할 수 있다.⁹⁾ 이러한 논쟁은 모두 자본주의적 논리와 체제로 사회가 재편되어져 가는 당대 중국의 현실에 대한 지식인들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1990년대 후반 중국의 시장경제화, 자본화의 논리에 적극 동조하는 ‘자유주의’와 이에 대해 강력한 비판세력으로 성장하였던 ‘신좌파’¹⁰⁾의 주장을 중심으로 90년대 중국 지식인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중국사회의 변화의 방향과 전개양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2. 개혁개방의 방향과 현대화

현재 중국의 공산당 정권을 지탱하는 이념은 표면적으로 여전히 사회주의다. 그러나 ‘사회주의’란 단어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여진 것을 보면 사회주의 본래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982년 덩소평은 중공12대 개막 연설 중에 처음으로 “자신의 길을 가며,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라고 역설한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이란 구호 속에서 우리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8) 졸고, 「중국 현대문화에 있어서 ‘인문정신’논쟁-90년대 중국 문화현상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16집, 참조

9) 賀桂梅, 「‘사회주의’와 ‘현대화’의 충돌 양상」, 『오늘의 문예비평』, 2002년 여름, 47쪽

10) 汪暉는 ‘신좌파’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우익의 자유주의자가 ‘좌파’와 후기 모택동을 연관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노리고 마치 문화대혁명 시기로 되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 이 꼬리표를 사용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지식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권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용어가 그들의 사상을 대표하는 하나의 정치적 용어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는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王超華, 위의 책, 88쪽 참조)

고민을 읽어낼 수 있다.¹¹⁾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까지 중국 공산당 정권의 합법성은 ‘모택동주의’라는 이념이 아니라, ‘중국 특색을 갖춘’ 개혁을 거친 사회주의에 대한 약속으로 지탱되어 왔다. 1989년 이후에도 이러한 담론은 지속적으로 변화를 했는데, ‘중국적 특색’은 더욱 강조되어졌지만 ‘사회주의’의 내용은 나날이 약화되어 지금 현재 그 이름만 남아있는 실정이다.¹²⁾

1) 시장화 전략

중국 정부가 개혁개방 이후 20여 년 간 여러 가지 굴곡을 거치면서도 굳건히 지켜온 원칙은 바로 시장화라는 전면적인 체제전환의 길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화 개혁의 전략은 무엇보다도 시장과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을 주도한 세력들은 ‘시장’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경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유기업을 점차로 주식회사로 전환시켜 경제 관리와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모택동 시대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모택동의 ‘평균주의 낙원(egalitarian utopia)’에의 염원¹³⁾을 담고 있는 계획경제체제¹⁴⁾는 결과적으로 노동력을

11) 중국 관방의 입장에 선 학자들은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가 단순히 사회주의의 이름만 빌려 자본주의의 실질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내용적으로 끊임없이 자본주의의 요소를 받아들이고, 자본주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들의 고민은 바로 사회주의의 틀 속에서 자본주의의 요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화를 하는가에 있다고 보여진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들이 개혁개방 이후 취해온 정책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王超華편, 위의 책, 34쪽

13) 개혁개방 이후 덩소평이 취했던 경제발전의 방침은 ‘先富論’이라고 부른다. 즉 ‘풍요롭게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역과 사람들부터 먼저 부자가 되자’라는 격차를 인정하는 사고로, 이는 차이를 없애는 평균주의를 중시했던 모택동의 사고와는 대조가 된다.

14) 계획경제는 자원배분이 시장에서의 가격신호를 대신하여 계획부서의 행정적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

포함한 자원의 합리적 배분에 역행하는 것이었고, 결국은 1970년대 말 경제개혁으로 이어지게 된다. 중국의 개혁개방이후의 경제개혁은 바로 이러한 계획경제체제의 한계와 그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대한 요구에서 출발하였다. 개혁개방을 주도한 세력은 주로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개혁의 방향을 잡아나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자유주의의 시각이란 바로 국가의 경제적 기능축소와 시장기제의 확대, 즉 시장의 우위를 강조하는 것이다.

자유주의 입장에서 중국의 개혁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가 시장의 관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시각에 의하면 개혁을 통해서 시장화가 촉진되지만 시장의 관성이 다시 새로운 개혁을 추동하는 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시장화 조치로 자원 및 기술과 판로에 대한 접근이 완화된다면 국유기업 이외에도 사영기업, 외자기업 등 다양한 소유제 형태의 기업들이 자원공급과 상품시장에 진입하게 되고, 그 결과 자원의 투입과 생산물의 판매에서 국유부분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고 각 영역에서 경쟁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경쟁의 심화는 독점적 지위에 의해서 수익이나 지대를 차지했던 국유기업의 이윤을 감소시킨다. 국유기업의 이윤감소는 관할정부의 수입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것은 대개 기업 자율성의 확대를 포함한다. 이것은 기업과 정부 사이의 연계를 더욱 약화시키면서 시장경쟁은 더욱 강화된다. 그러면 다시 기업은 구조조정,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규제완화를 더욱 강조하게 된다. 결국 자

행하기 위해서 모든 기업은 국유나 집체 소유로 편제된다. 개혁 이전 중국에서도 전민소유제라고 불리던 국영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지배적이었다. 국영기업은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정해진 물건을 생산하였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자본, 노동력, 원자재, 에너지 등은 국가가 지정하는 다른 기업에 의해서 공급되었고, 생산품은 국가나 정해진 기업이나 판매망을 통해서 처리되었다. 기업 경영자들은 국가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일반 관료와 동일시되었다. 완전고용과 종신고용 원칙에 기반을 두고 합리적 저임금이라고 불리는 비교적 평등한 분배와 이념적 무장을 통해서 낮은 보상으로도 노동에 대한 적극성을 유지하였다.

유주의적 논리에 의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계획경제는 궁극적으로 시장경제로 전환해간다는 것이다.¹⁵⁾ 개혁개방 이후 개혁주도세력들이 취하여온 일련의 정책은 바로 이러한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개혁개방이후 중국이 추진한 상업화 전략은 국유기업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시켜온 일련의 제도개혁에 따라 필연적으로 사회구조의 개편을 가져왔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통하여 중국은 스스로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에 편입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으며, 또한 오랜 전부터 외국 자본에 대한 개방과 무역의 확대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세계경제체제에 깊이 편입되어 왔다. 그리고 WTO 가입 이후 그것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가 취해온 ‘시장화’의 전략은 아무 문제없이 순탄하게 걸어온 것은 아니다. ‘시장화’로의 급격한 체제전환은 많은 사람들에게 노동의욕과 경제적인 동기를 자극했고, 과거의 계획경제에 비해 훨씬 큰 경제 효과를 낳게 되었지만,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중국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모순을 낳게 되었다.¹⁶⁾ 이러한 사회적 불안과 모순은 1989년 ‘천안문사태’를 통하여 극단적으로 표출되게

15) 김영진, 「중국의 시장화, 기업개혁, 노동의 정치경제」, 89-90 참조

16) 몇 가지 사회적 모순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현상을 낳게 되었다. 연해와 내륙의 격차, 개인 경영·외자기업과 국유기업 노동자간의 임금 격차 등이 확대되어 사회적 불만이 높아졌다. 둘째, 경제발전을 우선시 하면서 물질 만능주의의 경향(‘向錢看’)을 낳게 되어, 당의 간부와 일반 당원 대부분이 ‘상천엔칸(向錢看)’에 매달려 일상의 당무와 행정을 소홀히 하게 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관료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경제적 부정과 사회적 부패가 심각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 셋째, 개혁개방의 정책에 내재된 모순 때문에 경제적 혼란, 경제적 부정을 야기하고 있었다. 예컨대 지방이익 우선주의, 과잉투자 과잉생산, 이중 가격제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다오예(到爺, 일종의 부로키)가 횡행하고, 권력형 부패라고 할 수 있는 ‘관다오(官到, 관료인 부로키)’가 압약함에 따라 시민의 불평을 가져오게 되었다. 넷째, 시장 가격의 자유화와 함께 행정력으로 억제되고 있던 물가의 상승과 가격의 불안정화를 가져왔다. (아마코 사토시, 『중화인민공화국 50년사』 (임상범역), 일조각, 152-153쪽 참조)

된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자본주의를 수용하는 사회주의’의 노선을 걷기 시작한 것은 천안문 사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덩소평이 1992년 천안문 사태 이후 침체된 중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광주 심천등 남방을 순례하면서 개혁개방 정책의 지속적인 진행을 독려한 ‘南巡講話’ 이후에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급속하게 전화되었다. 특히 199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 14차 전국대회에서 덩소평(鄧小平)의 ‘남순강화’의 정신을 정확히 답습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를 주장한다. 남순강화의 정신을 정확히 답습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를 주장한다. 이것은 중국을 40여 년간 이끌어왔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와 내면적으로 결별을 선언한 것이며, 모든 것을 시장의 원리를 맡기고자 하는 것이다.

2) 현대화

개혁개방 이후 80년대 사상계의 분위기는 짧은 시간 내에 막대한 에너지가 표출되었고, 상당히 희망과 창조력이 가득 찬 분위기에서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개념들이 열정적으로 토론되었다. 이들이 주로 주목한 것은 중국 사회주의를 재검토하는데 문제의식을 집중하였다. 다시 말해 모택동 시기에 왜곡되어졌던 사회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재확립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주로 어떻게 중국의 현대화를 실현할 것인가와 왜 중국은 성공적으로 현대화를 이룰 수 없는가에 문제의식을 집중하였다.

역사적으로 돌아볼 때, 현대화와 사회주의 목표 간의 긴장 관계는 당대 중국을 꿰뚫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것은 중국이 근대에 들면서 서구문명과 문화의 충격 속에서 자신의 전통적 문화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현대화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사회주의 운동은 현대화 실현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현대화란 주로 정치 경제 군사 기술 등이 낙후한 상태에서 선진

상태로 이행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현대화’가 단순히 서구적 방식의 자본주의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모택동의 사회주의의 이상은 한편으로는 일종의 현대화 이데올로기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과 미국의 자본주의 현대화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1949년 정권을 잡았을 때 한 번의 혁명이 아닌 두 번의 혁명, 즉 부르주아 혁명과 뒤이은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해야 했다. 모택동 시대의 사회주의는 현대공업화를 위한 수단과 사회주의 목표를 서로 조화시키고자 한 독특한 시도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현대화는 대단히 독특한 경로를 밟게 되었고, 지금의 중국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 발전의 기본 방침은 50-70년대의 모택동 정책의 실패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내부적으로 변화를 가져온다. 사회주의 목표에 대한 추구를 잠시 제쳐두고 ‘현대화’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는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이데올로기는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 기본 방향을 전환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들은 사회주의 실현을 최종적 목표로 두고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생산력의 발전’ ‘경제 건설의 중심’을 강조한다. 중국의 관변 언론들은 단계적이니 임시적이니 하는 말들을 여전히 떠들었지만 실제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모택동의 시대에 비해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이들은 ‘현대화’를 가장 시급한 임무로 전면에 내세우게 된다. 모택동 시대 즉 개혁이전에 강조되었던 현대화와 다른 점은 경제 영역의 시장화이다. 이는 중국의 경제와 사회 문화를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접목시켜 중국사회를 전지구적 시장사회로 편입시키고자 한 것이다.¹⁸⁾

17) 汪暉는 “가치관과 역사관의 측면에서 볼 때 모택동의 사회주의사상은 자본주의 현대화를 비판한 가운데 현대화를 추구한 ‘반자본주의 현대성적 현대성’이론이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사상계의 현황과 현대성 문제』, 『새로운 아시아를 생각한다』, 창비, 48쪽)

18) 汪暉는 개혁개방을 주도한 세력들은 모택동 시대의 이상주의적 현대화를 폐기하

80년대 지식인들은 기본적으로 현대화와 사회주의 목표 사이의 모순적인 결합에 대해서 더 이상 주목하지 않았다. 시대와 역사의 유일한 주제가 된 현대화에 대하여 고도의 유토피아적 색채가 덧입혀졌고, 사회생산력의 발전을 사회의 주요 목표로 삼아 ‘현대화’를 진행할 때 고도로 발전한 물질생활을 따라 아주 자연스럽게 고도로 민주적이고 부강한 중국이 출현할 것이라는 낙관적 이상사회관을 강조하게 되었다.¹⁹⁾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개혁이 진행될수록 농촌과 도시의 사회적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어졌지만, 이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고, 개혁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의 한 현상으로 정당화되기도 했다. 개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모순은 경제발전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사회갈등을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메커니즘으로 ‘시장’이 부상하게 되었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이상보다는 현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제도 개혁을 시도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80년대의 현대화 과정은 50-70대까지의 모택동의 사회주의의 실천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현대화’ 이데올로기가 급속히 확산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전략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택동 시대의 실패한 사회주의 역사를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역사로 간주한다. 이른바 현대화와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목표 간의 모순을 현대화와 봉건이데올로기 및 가치관 사이의 모순으로 여긴 것이다. 모택동 시대의 경제적 침체 정치적 독재와 문화적 우매함을 질책하는 가운데 현대화와 사회주의 목표사이의 충돌을 문명/우매, 현대/전통, 계몽/혁명이라는 일련의 이분법적 대립으로 묘사한

고 단지 ‘현대화’ 목표만을 계승하였다고 지적한다. 개혁이전의 사회주의와 비교할 때 개혁이후의 사회주의는 현대화 이데올로기로서의 맑스주의기는 하지만 개혁 이전의 사회주의가 지니고 있었던 반현대성적인 경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위의 논문, 50쪽)

19) 80년대 지식인에게 있어서 ‘현대화’는 매우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닌 동시에 유토피아의 상징’이라고 戴錦華는 정의한다.(戴錦華, 「對80年代文化的一種檢討」, 『戴錦華放談錄』, 287쪽)

다.²⁰⁾ 이를 통하여 과거 사회주의에 대한 반성을 시도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80년대 중국 지식계의 ‘신계몽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80년대 신계몽주의는 모택동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데는 ‘거대한 능동성’을 발휘하였지만, 90년대 중국에서 자본주의 시장의 등장이나 그들이 갈망했던 현대화가 실현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위기 등에 대처하는 데는 ‘창백한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²¹⁾ 1980년대 중국의 자유주의를 대변하던 신계몽주의가 199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의 적극적 주창자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이들이 주장하는 ‘시장만능론’과 ‘경제발전이 민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경제지상주의, 발전 이데올로기, 그리고 경제 개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비판력을 점차 상실함에 대하여 ‘신좌파’들이 제기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들은 표면적으로 국가의 목표와 대립되는 듯이 보이지만, 실재에 있어서 국가의 개혁이데올로기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²⁾

3. 90년 사상계의 분화와 그 대응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줄곧 시장화를 중심으로 개혁의 방향을 진행해왔고, 세계경제체제에 편입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이념은 바로 세계화로

20) 汪暉는 개혁개방이후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의 초점은 두 가지로 모아진다고 한다. 첫째는 이상주의적 공유제 및 그와 관련된 균등분배제도가 효율이 저하를 초래하였다는 점, 둘째는 독재적 풍토가 전국적인 정치적인 박해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그 결과 역사에 대한 청산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효율을 추구를 핵심으로 한 중국 사회주의 개혁이 농촌 공사제의 해체와 토지청부생산제(承包制)의 실시에서 출발하여 차츰 도시공업의 청부생산과 주식제 실행으로 넓혀나갔고, 개방적인 개혁을 실천하는 가운데 중국을 세계자본주의 시장으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한다.(汪暉, 「중국사상계의 현황과 현대성 문제」, 49쪽)

21) 汪暉, 위의 논문, 69쪽

22) 汪暉, 위의 논문, 56쪽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이다. 80년대 중반 이후 신계몽운동을 주도했던 지식인들은 ‘救亡’이 계몽을 주도한 근대의 아픈 경험과 문혁에 대한 반발 심리가 강했기 때문에 자유주의에 대하여 호의적 반응을 보인다. 다시 말해 중국의 개혁개방이 문혁을 주도했던 좌파에 대한 비판을 출발점으로 삼아 전개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자유주의에 긍정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천안문 사태를 거치면서 지식인들은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는 종식되었지만,²³⁾ 중국공산당이 1992년 시장경제를 경제운영의 기본 체제로 삼는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을 들고 나오면서 대내적으로는 시장화를 가속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화의 경제 체제에 적극 참여를 선언하면서 자유주의는 상당히 주도적인 세력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汪暉가 자유주의는 중국 공산당의 보수적 정치의 합법성 위기를 변호해주는 이론적 도구에 불과하며 자유주의자들이 이들 주류 체제를 대변해주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²⁴⁾ 이처럼 1990년대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계 경제체제에 편입해가려는 노력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모순에 대하여 한쪽에서는 건전한 시장경제로 나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과도기적인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반면, 다른 측에서는 그와 반대로 이는 전지구적으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중국판에 불과하며, 그 결과는 소수

23) 80년대 지식인들은 자신을 문화적 영웅이자 선각자로 여겼다. 그들은 계몽적인 역할을 담당했었고, 또한 그들이 제시하는 이데올로기가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 개혁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등소평의 사회주의 개혁 운동’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면서 국가권력의 비호를 받았고, 또한 대중들의 대변인으로서 개혁이념을 선전하고 대중들을 이끄는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지식인의 지위는 ‘천안문 사태’로 한 차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정부와 지식인의 충돌로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근대화의 개혁적 주장하는 지식인들이 90년대 들면서 국가로부터 소외되게 된다. 중국 정부가 적나라한 상품시장, 소비문화로 환원하여 중국을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사회로 확장하게 되면서, 無所不在로 퍼진 상업문화 속에서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문화적 영웅도 가치의 창조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24) 汪暉, 「1989년 사회운동과 중국 ‘신자유주의’의 기원」,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 창비, 109쪽 참조

특권층에 형성될 뿐 이 과정에서 밀려난 피해자들은 구조조정이 끝나더라도 그전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²⁵⁾ 이들은 모두 시장경제체제로 사회가 재편되어져 가는 당대 중국의 현실에 대한 지식인들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심에 ‘자유주의’와 ‘신좌파’의 논쟁이 자리하고 있다.²⁶⁾ 이들은 현대성, 자유와 민주, 사회공정, 경제윤리, 민족주의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개혁에 대한 서로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신좌파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1997년 『天涯』 잡지에 「당대 중국의 사상적 현황과 현대성문제」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약 3년간의 자유주의와 신좌파논쟁을 불러일으킨 汪暉를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미국 시카고 대학 연구원인 甘陽,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정치학과 교수인 崔之元, 북경대학교인 韓毓海, 홍콩 중문대학 교수인 王紹光 등이다. 이들은 주로 해외 즉 미국에 유학했거나 미국 대학의 교직에 있는 중국계 학자들과 일부 중국의 인문학자, 사회학자들로 구성된다. 네오맑시즘의 영향을 받았으며, ‘제도개혁’을 주장하면서 자유주의자를 비판함으로써 중국적인 현대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의 이론적 진지는 『讀書』이다.

한편 자유주의자의 대표적인 학자로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인 李慎之, 청화대학 인문학원의 秦暉,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연구원인 徐友漁, 상해대학 역사과 교수인 朱學勤, 북경대학교 경제과 교수인 汪丁丁, 상해사범대학 역사과 교수인 許紀霖 등이다. 이들의 주된 무대는 『公共論叢』 잡지이다. 이 잡지의 발간은 자유주의 출현을 가시화 하는 증거였다. 중국의 자유주의 역시 세계화의 주도 이념인 신자유주의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하이케크의 경제 이론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 그의 대표작 『노예로 가는 길』과 『자유주의 질서 원리』가 번역 출간되어

25) 백승욱, 「신자유주의와 중국지식인의 길 찾기」, 『역사비평』 2001, 279쪽 참조

26) 오늘날 중국 사상계를 단지 ‘신좌파’와 ‘자유주의’의 대립으로 관찰하는 것은 단순화의 위험이 있고, 중대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두 진영으로 대별하지만 각 주장사이에는 중간지점도 있고, 또한 중복된 지점도 있기 때문이다.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

1) 신좌파의 논리와 대응

신좌파는 1990년대 중국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 안으로 이미 편입되었다는 공동의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시장화와 세계화의 심화 속에서 기형적 시장이 초래한 공공공간의 축소와 사회의 불공정, 국내집단과 초국적 기업의 결탁, 국유재산의 매각 등의 현실 문제에 직면하면서 신계몽운동의 주도적 이념이었던 자유주의에 대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汪暉는 1990년대 중국의 현실은 이미 전지구적 자본주의와 연관된 현실이라고 파악한다. 자본은 ‘무소부재’하고, ‘사회생활 각 모퉁이에게까지 침투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본의 운동에 대한 분석을 방기한다는 것’은 실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현실이 자본의 운동에 의해 작동되고 있는데도 그것에 둔감한 채 ‘몽매상태’ 혹은 ‘실어상태’에 빠져 있는 1990년대 중국 지식인들에 대하여 강력한 비판을 제기한다.

신좌파는 1980년대 서구의 현대화라는 구도 속에서 진행된 전통에 대한 일방적 폄하와 부정의 태도에 대하여 반성하고, 중국과 서양, 전통과 현대화라는 이분법적 접근 방식에서 탈피하여 중국이 갖는 ‘현대성’에 대하여 새로운 학적 주장을 내놓게 된다. 60년대 말 프랑스와 미국에서 일어난 학생운동이 모택동의 혁명비전과 문화대혁명에 강하게 영향 받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崔之元도 이러한 점에서 모택동 사상을 다시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 「제도개혁과 제 2차 사상해방」에서 중국의 지식계가 “‘신진화론’ ‘분석적 마르크스주의’ ‘비판법학’에 유익한 내용을 섭취해야한다”고 제안하면서, 1970년대 말의 사상해방 운동에 상응하는 새로운 사상해방을 전개해야 하며, 개혁개방 이전의 모든 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민주라는 서구 자본주의 모델과 시장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제도 물신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지원은 중국 자신이 사회주의 전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농촌의 ‘주식합작제’, ‘촌민위원회 직접선거’ 등의 실천과 같이 ‘이미 출현한 일부 제도 혁신의 맹아를 자신의 풍부한 토양을 기초로 하여 발육시켜’ 경제 민주와 정치민주를 완전한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모택동이 실시한 ‘대약진’, ‘대중에게 배우자’, ‘문화대혁명’ 등과 같은 비전 속에 합리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새로운 조건아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조직적으로 묶어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모택동에 의한 ‘政社合一體制’는 경제적 민주와 정치적 민주를 기초를 쌓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안강헌법’이 일본과 독일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였다.²⁷⁾ 또한 브라질계 미국인 로베토 웅거와 함께 쓴 「러시아 경험에 비추어본 중국」에서 중국은 여전히 러시아가 겪고 있는 부패, 양극 분화, 경제 발전 정체 등을 특징으로 하는 라틴아메리카의 모델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의 민주를 실현하고 심화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²⁸⁾ 그는 향진기업의 ‘주식합작화’를 ‘소유권의 미분화’로 보지 않고, 임기응변으로 외부 자본을 조달하고 농촌내부의 민주적 관리를 유지할 수도 있는 ‘제도 창조’로 평가하고 있다. ‘주식합작제’는 광범한 대중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한 정치적 민주와 평등을 실현하는 중국의 독자적인 제도라고 주장한다.²⁹⁾ 이것은 서양의 제도에 대한 물신숭배를 넘어 중국적 특색을 지닌, 즉 중국이 처한 현실에 맞추어 민주를 확립하고자 한 시도이며, 서구적 자본주의의 모델이 중국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가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汪暉는 신계몽주의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위하여 ‘현대화’ 문제에 먼저 주목한다. 그는 중국지식인들의 고민이 ‘현대화’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근대 이후 중국 지식인사회의 역사적 성찰은 어떻게 중국의 현대

27) 崔之元, 「제도 혁신과 제 2차 사상해방」,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창비, 85-106 참조

28) 崔之元, 「러시아의 경험에 비추어본 중국」, 위의 책, 31-46 참조

29) 崔之元, 「제도 혁신과 제 2차 사상해방」,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창비, 103-104쪽

화를 실현할 것인가와 왜 중국은 성공적으로 현대화를 이룰 수 없었는가에 집중되었다고 본다. 1980년대를 통틀어 중국 지식인들은 중국 사회주의를 재검토하는데 문제의식을 집중했고, 사회주의를 반현대화의 형식으로 주로 이해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여기서 그는 근대 이래로 제기되어 온 ‘현대화’에 대하여 “중국 지식인들에게 현대화란 부강한 현대국가를 건립하는 방식이자, 서구 현대사회 및 그 문화와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아 중국의 사회와 전통을 비판하는 과정이었다.”³⁰⁾라고 정의한다. 그로 인하여 중국 근대성 담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중국/서구’ ‘전통/현대’의 이원대립 방식으로 중국 문제를 해부하고 논의해왔다는 것이다.

汪暉의 해석에 따르면 현대화 이데올로기로서의 맑시즘은 중국현대사에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가 자본주의적 현대화에 반대하는 현대성 이론으로서 모택동 사상이고, 둘째는 현대화 이데올로기로서의 실용적 맑시즘, 즉 등소평사상이고, 세 번째가 개혁개방 초기에 중국 공산당 내부와 일부 맑스주의자 사이에 존재했던 인도주의적 맑시즘이 그것이다. 汪暉는 가치관과 역사관의 측면에서 볼 때, 모택동의 사회주의 사상은 일종의 ‘반자본주의 현대성적 현대성’이론이었다는 것이다.³¹⁾ 汪暉는 문화대혁명의 종결로 영구혁명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특징인 모택동 사회주의는 종말을 고하였다고 한다. 사상적 측면에서 모택동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은 주로 첫째 모택동의 이상주의적 공유제 및 그 평균주의 제도가 효율의 저하를 초래했다는 것과 둘째 모택동의 전제적인 스타일이 전국적인 정치박해를 가져왔다는 것 등이 비판의 초점이 되었다.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경제가 발전하였고 기존 사회구조가 변화하였다. 그러나 모택동의 이상주의적 현대화 방식은 폐기하고 현대화 목표만 계승하게 된다. 등소평으로 대표되는 문혁 이후의 개혁적 사회주의 역시 근대화 이데올로기로서 맑스주의이자 실용주의적 맑스주의다. 모택동의

30) 汪暉, 위의 논문, 42쪽

31) 주) 18 참조

현대화와 다른 점은 현재 진행 중인 중국 사회주의 개혁의 주요 특징이 바로 경제영역의 시장화인데, 이것은 중국 경제와 사회 문화를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접목시켜 중국사회를 전지구적 시장사회로 편입시킨 것이다. 개혁이후의 사회주의는 모택동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반현대성적 경향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게 되었다. 모택동 사상을 자본주의 근대성을 초월하여 새로운 근대성을 창출하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汪暉는 나날이 자본주의의 세계화 과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후발 국가들은 반드시 ‘이론 혁신과 제도 혁신의 새로운 역사적 기회’를 붙잡아야하고, 章太炎과 노신의 변증법적 정신으로써 자신의 ‘반현대성적 현대성’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³²⁾

汪暉를 비롯한 신좌파들의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바로 중국의 현존하는 사회주의 존재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의 방식에서 차이에서 출발된 것이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와 신좌파 논쟁은 중국의 현실에 대한 서로의 이해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다. 신좌파는 현재 중국의 당면 문제는 ‘현대화(시장화)의 불충분함’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며, 사회주의 역사적 경험과 목전의 ‘현대화’가 갖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결합하여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낼 계기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주의는 현재의 문제는 시장에 대해서 국가의 권력이 지나치게 관여한 탓에 생긴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혁하고 더욱 철저하게 시장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와 사회의 관계란 측면에서 보면 자유주의자는 80년대의 문제의 틀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신좌파는 중국의 현실 문제는 전지구적 신자유주의 각도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현실은 이미 자본화된 사회라는 것이다. 汪暉는 계몽주의 지식인들이 정치 민주화와 당과 정부의 부패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만, 그들은 중국의 자본화 이후 국가의 독재 행사 방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무관심할 뿐 아니라, 현재 중국정치부패의 원

32) 王超華편, 『고쳐보는 중국』, 45쪽

인 중 하나가 국제 자본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90년대 자유주의가 80년대 계몽주의의 발전이라는 점에서 볼 때, ‘신좌파’가 자유주의 ‘시장만능론’과 ‘경제의 발전이 민주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자유주의자들의 경제 지상주의 발전 이데올로기에 비판을 가하는 것은 자연스런 논리적 귀결이다.³³⁾ 汪暉는 자유주의자들의 ‘선 경제발전 후 민주’주장이나 ‘경제발전이 민주를 가져온다’는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 중국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새로운 계층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것이 정치민주화의 동력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개방이 중국 사회 민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甘陽은 중국의 자유주의적 지식인들이 자유를 시장의 자유로 귀납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경제가 최대의 자유를 실현해 줄 것이라는 집단적 신앙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자유주의에게 있어 민주는 사치이고 평등은 죄악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90년대 중국 사상은 극단적 보수주의로 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와 평등을 부정하고, 자유를 모든 사람들의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수인의 특권”³⁴⁾으로 인식한다.

이상에서 보듯, ‘신좌파’는 90년대 자본주의로 체제변화를 가져온 중국 현실을 사상적 발판으로 삼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근대를 넘어 새로운 대안적 전망을 모색하려는 사상적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 汪暉를 비롯한 신좌파는 80년대 서구 근대성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진행된 전통에 대한 일방적 폄하를 반성하고, 중국/서구와 전통/근대가 교차하던 근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중국 근대사와 근대성에 대한 재인식하면서 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진지한 문제제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3) 이에 대해 韓毓海는 “중국 자유주의자들이 자본 주도의 시장 경제를 자유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다. 시장경제 속에서 자유란 왕왕 노예가 될 자유를 의미할 따름인데도 그것을 평등의 공간으로 상징한다”라고 지적한다.

34) 甘陽, 「自由主義: 貴族的還是平民的」, 『讀書』, 1999, 1월

2) 자유주의의 논리와 대응

자유주의는 현재의 문제는 시장에 대해서 국가의 권력이 지나치게 관여한 탓에 생긴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혁하고 더욱 철저하게 시장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중국의 사상적 문화적 분위기가 아직도 전체주의와 국가주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현대성을 거의 시장 경제와 등치시키고 있다. 그리고 시장경제의 전면적 도입이 정치적 민주화나 개인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의 현대화는 서양이 근대에 이미 도달하였던 인도주의, 과학적 이성, 자유, 민주, 법치 등의 현대적인 가치를 빨리 중국에 도입하여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청화대학의 秦暉는 ‘작은정부’ 이론을 주장한다. 이것은 보다 투명한 경쟁 원리를 공공의 것으로 하여, 당과 정부의 시장개입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점에서 분배적 정의의 실현을 당과 정부에 기대하는 것이다. 제한적이나마 국가권력이 미치지 않는 개인의 자유로운 공간을 열어주게 된 시장 속에서 사람들은 전에 없던 활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를 주장한다. 시장은 자유를 선사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어느 정도의 평등을 실현해 주기도 했다. 여기서 자유주의자들은 공공영역으로서의 사회 즉 시민사회에 주목한다. 민간조직 건설에 적극적인 것도 바로 자유주의자들이다.

秦暉는 재산 획득하거나 양도할 경우에 반드시 공정성이 지켜져야 한다. 중국은 서둘러 출발의 공정성과 규칙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에서 재산의 불평등은 권력과 시장의 유착이며, 권력의 방패가 없는 시장 메커니즘에는 출발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력없는 시장은 경쟁하기 이전에 이미 경쟁에서 낙오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권력을 방패로 삼고 있는 시장은 은행융자와 경쟁입찰 등에서 권력으로부터 암묵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3권이 분리되지 않은 중국의 법 풍토에서 권력이 실질적인 경제 관련법의 해석권

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칙의 공정성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으며, 권력으로부터 규칙 해석권을 분리시켜 규칙의 공개화와 투명화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재화의 분배에 있어서도 과정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矯正的 정의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 출발의 공정성과 규칙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현대 중국의 심각한 부정부패를 초래하고 있고, 이러한 부정부패의 근원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다른 아닌 시장 메커니즘과 유착한 당과 정부의 행정 권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秦暉는 또한 줄곧 농민에 대한 착취를 반대해왔다. 秦暉는 “농민들에게 ‘시장 그 자체만’으로는 실천뿐만 아니라 이론면에서도 논리적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는 오늘날 우리는 농업이 완전히 市場에 의존하여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과 市場을 찾을 수 없는 경우 市長이 팔짱을 끼고 개입하지 않는 것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고, 국가가 농민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을 발전시켜야 할 책임을 저버리거나 경제와 사회적 자유가 보장되는 가운데 농민이 시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때 권력과 명령으로 농민을 억압하는 상황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⁵⁾

자유주의자들의 대표자의 한 사람인 朱學勤 은 “신좌파가 시장 메커니즘을 비판할 것을 요구할 때 자유주의자는 정치체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신좌파와 자유주의의 사상적 분기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자유주의 철학관은 선험주의와 대립하고, 자유주의적 역사관은 시행착오를 통해 진화한다는 것으로서 각종 역사 결정론과 대립한다. 자유주의 변혁관은 점진적 확대 발전으로서 급진주의적인 인위적 변화와는 대립한다. 자유주의는 경제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요구하기 때문에 계획경제와 대립하고, 정치적으로 대의제 민주와 입헌 정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개인 또는 소수의 독재와 다수인이 ‘공공의 뜻’이라는 명목으로 휘두르는 군중 독재(mass dictatorship)를 반대한다. 자유주의는 윤리적으로 개인의 가치

35) 王超華, 위의 책, 40쪽

를 보장하며, 여러 가치가 희생될 수 있어도 개인의 가치는 어떠한 추상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 朱學勤은 아담 스미스 이래 고전적인 경제자유주의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원리를 상정해 온 것에 대하여,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을 방해하는 ‘보이는 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이는 발’이란 기득권을 배경으로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를 교란시키는 행정 권력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들의 신좌파에 대한 태도나 논쟁에서의 비판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신좌파에 대한 논쟁이전에 사실상 자유주의 내부의 논쟁도 자못 의미롭다. 秦暉 許紀林 등 자유주의자들 내부에서조차 사이비 자유주의자와 비판적 자유주의자라는 구분을 시도한다. 그 구분의 진짜 이유는 사이비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이미 중국 정부의 주장과 구분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건전한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秦暉 등이 자유주의 좌파가 있는데, 이들은 중국의 현 상황을 원시적 축적으로 보지만 원시적 축적이 필연적 과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정치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른 한편 許紀林등은 秦暉의 ‘시장=공정, 원시축적=억압’으로 보는 논지를 반대하면서 추상적인 절차와 출발점의 공정성만 보고 결과의 공정성과 실제 과정의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사이의 차이는 신좌파의 차이에 비하면 크게 논의될 바가 아니다. 王丁丁은 “보편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민족주의를 택하는 것보다 낫고, 개인주의를 택하는 것이 집단주의를 택하는 것보다 낫다”³⁶⁾라고 말한다. 이들 자유주의자들은 대부분 현대는 여전히 미완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신좌파들이 비판하는 중국의 자본화는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蕭功秦은 「1990년대 이래 중국 지식인의 사상 분화」라는 글에서 신

36) 王丁丁, 「계몽은 죽었다. 계몽만세!- ‘중국문제’에 관한 汪暉의 언설에 대한 평」, 『戰略與管理』, 1999, 1기

좌파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그는 신좌파의 사상적 오류에 대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개괄한다. 1) 잘못된 구체감의 오류: 신좌파는 서양의 특정한 이론이나 관점을 끌어다 중국의 현실에 대해 자신의 주장과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중국에 아직 현대성이 실현되지 않았는데 현대성을 비판하는 것은 구체도의 부활을 돕는다 2) 낭만문화의 오류: 신좌파는 현실 중의 폐단과 상반되는 가치(예를 들어, 현실의 불공정과 반대되는 균등한 부와 공평한 분배와 같은 가치)를 무의식중에 문화대혁명 혹은 게바라식의 사회주의 같은 대상에 투사하고 덧붙인다. 3) 완전주의의 오류: 좌파 완전주의자는 인위적으로 설계한 평균주의적인 사회 모델을 가지고 불완전한 시장경제 모델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崔之元이 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문학은 진정으로 민주의 시대를 실현한 것이고, 하나의 위대한 제도적 혁신이었다. 만약 우리가 모조석의 노선에 따라 문학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서방 자본주의 국가와는 다른 빛나는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한 관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신좌파의 사조는 서방 좌익 사회주의 사상이론을 기초로 하여 평등과 공평을 핵심가치로 한다. 시장경제를 향한 중국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출현한 사회 분화와 규범상실, 사회적 문제를 자본주의 사회적 모순의 체현으로 이해하고, 평균주의 사회주의로써 중국의 문제를 해결할 기본적 선택으로 삼는 사회 사조이다라고 규정한다.³⁷⁾

자유주의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문학의 상처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다양한 서구 자유주의 사조가 소개되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과거 익숙했던 프랑스적 전통과 다른 에그문트 버크나 하이에크, 이사야 벌린, 토크빌 등의 영미 계열의 학설에 흥미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호적과 같이 중국 현대의 자유주의자에 대한 복권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신중국 이후의 역사를 부정적 맥락에서 바라보고, 현대화

37) 蕭功秦, 「1990년대 이래 중국 지식인의 사상분화」, 『오늘의 문예비평』, 2002 여름, 77쪽

만을 강조하는 것도 너무 일면적이고 낙관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란 권리의 자유이며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자유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현실을 돌아볼 때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보다 큰 문제는 냉전 이후 세계의 보편적 이념이 되어버린 자유주의가 그다지 보편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개인 위주의 보편성 이론과 민족이나 종족의 특수성을 보호하는 다원주의의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 민족국가를 기본 단위로 했던 자유주의가 민족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원리를 정당화할 수 있을 지에 관한 문제, 초국적 자본이 정치 경제 군사적 영역에서 새롭게 야기하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 등에 대해서 중국 내 자유주의자들은 중국의 역사와 현실을 강조하는 이외에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4. 나오는 말

이상에서 1990년대 후반 중국의 시장경제화, 자본화의 논리에 적극 동조하는 ‘자유주의’와 이에 대해 강력한 비판세력으로 성장하였던 ‘신좌파’의 주장을 중심으로 90년대 중국 지식인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현재 중국의 공산당 정권을 지탱하는 이념은 표면적으로 여전히 사회주의다. 그러나 ‘사회주의’란 단어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여진 것을 보면 사회주의 본래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이란 구호 속에서 우리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고민을 읽어낼 수 있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까지 중국 공산당 정권의 합법성은 ‘모택동주의’라는 이념이 아니라, ‘중국 특색을 갖춘’ 개혁을 거친 사회주의에 대한 약속으로 지탱되어 왔다. 1989년 이후에도 이러한 담론은 지속적으로 변화를 했는데, ‘중국적 특색’은 더욱 강조되어졌지만 ‘사회주의’의 내용은 나날이 약화되어 지금 현재 그 이름

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 발전의 기본 방침은 50-70년대의 모택동 정책의 실패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내부적으로 변화를 가져온다. 사회주의 목표에 대한 추구를 잠시 제쳐두고 ‘현대화’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는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이데올로기는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 기본 방향을 전환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들은 사회주의 실현을 최종적 목표로 두고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 ‘생산력의 발전’ ‘경제 건설의 중심’을 강조한다. 중국의 관변 언론들은 단계적이니 임시적이니 하는 말들을 여전히 떠들었지만 실제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모택동의 시대에 비해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이들은 ‘현대화’를 가장 시급한 임무로 전면에 내세우게 된다. 모택동 시대 즉 개혁이전에 강조되었던 현대화와 다른 점은 경제 영역의 시장화이다. 이는 중국의 경제와 사회 문화를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접목시켜 중국사회를 전지구적 시장사회로 편입시키고자 한 것이다.

1990년대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계 경제체제에 편입해가려는 노력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모순에 대하여 한쪽에서는 건전한 시장경제로 나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과도기적인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반면, 다른 측에서는 그와 반대로 이는 전지구적으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중국판에 불과하며, 그 결과는 소수 특권층에 형성될 뿐 이 과정에서 밀려난 피해자들은 구조조정이 끝나더라도 그전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들은 모두 시장경제체제로 사회가 재편되어져 가는 당대 중국의 현실에 대한 지식인들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좌파는 1990년대 중국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 안으로 이미 편입되었다는 공동의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시장화와 세계화의 심화 속에서 기형적 시장이 초래한 공공공간의 축소와 사회의 불공정, 국내집단과 초국적 기업의 결탁, 국유재산의 매각 등의 현실 문제에 직면하면서 신계몽운동의 주도적 이념이었던 자유주의에 대한 새롭게 인식

하게 되었다. 신좌파는 1990년대 중국의 현실은 이미 전지구적 자본주의와 연관된 현실이라고 파악하고, ‘자본의 운동에 대한 분석을 방기한다는 것’은 실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현실이 자본의 운동에 의해 작동되고 있는데도 그것에 둔감한 채 ‘몽매상태’ 혹은 ‘실어상태’에 빠져 있는 1990년대 중국 지식인들에 대하여 강력한 비판을 제기한다. 신좌파는 1980년대 서구의 현대화라는 구도 속에서 진행된 전통에 대한 일방적 폄하와 부정의 태도에 대하여 반성하고, 중국과 서양, 전통과 현대화라는 이분법적 접근 방식에서 탈피하여 중국이 갖는 ‘현대성’에 대하여 새로운 학적 주장을 내놓게 된다.

자유주의는 현재의 중국 문제는 시장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지나치게 관여한 탓에 생긴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혁하고 더욱 철저하게 시장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중국의 사상적 문화적 분위기가 아직도 전체주의와 국가주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현대성을 거의 시장경제와 동치시키고 있다. 그리고 시장경제의 전면적 도입이 정치적 민주화나 개인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현대화는 서양이 근대에 이미 도달하였던 인도주의, 과학적 이성, 자유, 민주, 법치 등의 현대적인 가치를 빨리 중국에 도입하여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로 생각한다.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전개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싫든 좋든 우리가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큰 도전이다. 중국도 이러한 세계화의 조류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신좌파와 자유주의 논쟁은 새로운 사상적 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변화되는 중국의 현실 속에서 신좌파가 주목했던 모택동 시대의 재평가, 그리고 현대화와 사회주의 모순 관계를 다시 주목하고자 했던 그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도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 사유화와 반비례하는 사회복지, 노동자의 명예퇴직, 실업자의 급증 등 해결해야할 사회적인 모순이 심각하게 드러

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본주의적 모순을 피해 서로 조화할 수 있는 실천적 길을 모색할 때 신좌파가 제기한 그 문제들은 다시금 주목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시도가 단순히 문화적 측면에서 ‘전지구적 미국화’에 대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측면에서 동아시아의 문화적 연대와 교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汪 暉,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 창비, 2003
- 汪 暉, 『死火重溫』 (죽은 불 다시 살아나, 김택규역), 삼인, 2005
- 崔之元,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창비, 2003
- 王超華외, 『고뇌하는 중국』, 길, 2006
- 강내희, 『신자유주의와 문화 - 노동사회에서 문화사회로』, 과학문화사
- 안병영·임혁배 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출판
- 강성구 김세균외,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 사회진보연대 불안정노동연구 모임편,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 : 불안정 노동 연구』
- 사회와 철학연구회 : 『세계화와 자아 정체성』, 이학사, 2001
- 윌터 레이피버, 『마이클 조던, 나이키, 지구 자본주의』, 2001
- 孟繁華 : 『衆神狂歡-當代中國的文化衝突問題』, 今日中國出版社, 1997, 北京
- 何清漣 : 『現代化的陷阱-當代中國的經濟社會問題』, 今日中國出版社, 1998, 北京
- 馬立誠 凌志軍 : 『交鋒 -當代中國三次思想解放實錄』, 今日中國出版社, 1998, 北京
- 田雪原 : 『大國之難-當代中國的人口問題』, 今日中國出版社, 1997, 北京
- 王曉明編 : 『人文精神尋思錄』, 文匯出版社
- 백원담 편역 : 『인문학의 위기』, 푸른숲, 1999
- 원승룡 김종현 : 『문화이론과 문화위기』, 서광사
- 戴錦華 : 『隱形書寫-90年代文化研究』, 江蘇人民出版社, 1999
- 세뮤얼 헌팅턴 : 『문명의 충돌』, 김영사
- 靳輝明 羅文東 : 『人道主義與現代化』, 安徽人民出版社
- 龐中英 : 『全球化反全球化與中國(解釋全球化的複雜性與多樣性)』, 上海人民出

版社, 2002

弗雷德里克 外 : 『全球化的文化』, 南京大學出版社, 2002

尹鴻 外 : 『全球化與大眾傳媒』, 청화대학출판사, 2002

段若鵬 外 : 『中國現代化進程中的階層結構變動研究』, 인민출판사, 2002

黎德化 : 『中國文化的現代化』, 內蒙古人民出版社, 1999

郭太風 : 『文化的主流和支流』, 學林出版社, 2002

王曉明 : 『在新意識形態的籠罩下-90年代的文化和文學分析』, 江蘇人民出版社, 2000

李澤厚 : 『고별혁명』, 북로드, 2003

아마코 사토시, 『중화인민공화국 50년사』 (임상범역), 일조각, 2003

이강수 : 『대중문화와 문화산업론』, 나남출판사

정재호편, 『중국개혁-개방의 정치경제 1980-2000』, 까치, 2002

백승욱, 「신자유주의와 중국지식인의 길 찾기」, 『역사비평』 2001,

全球化和90年代中國知識分子的對應

-以‘自由主義’和‘新左派’爲中心-

朴 勝 顯

本論文討論了在中國進入到資本主義市場化的情況下發生的自由主義與新左派之間的爭論。兩派在現代性，自由與民主，社會正義，經濟倫理，民族主義等一系列涉及到中國改革的重大問題上，發生了激烈的爭論。90年代中後期的自由主義與新左派的大論戰，就是改革合法性爭論的表面化。新左派認爲新自由主義是一種爲全球資本主義中國化辯護的意識形態。新左派 強熱批評在中國的經濟改革和社會資源再分配中，少數權貴成爲最大的得益者，而廣大平民成爲被剝奪的犧牲品。他們指出，所謂「自發調節的市場經濟」在西方歷史中也是一個虛幻的神話，資本主義本性的本性就是要操控和壟斷市場。

自由主義相信中國改革的目的就是建立一個自由的市場和憲政民主制度，而其前提就是要在法治框架之內，落實包括人身、財產，言論和出版自由內在的最基本的人權。他們認爲目前的私有化是不公正的，而社會不平等的癥結，在於權力遠遠沒有退出市場，是「看得見的手」干擾「看不見的手」，唯一解決的途徑是全面徹底的市場化，切實落實私人的財產權，將權力完全逐出市場，以實現自由主義的機會平等和程序正義，是因爲政治上缺乏民主憲政和現代法治，特別是缺乏公民的基本自由權利。

關鍵詞：全球化，現代化，新左派，自由主義

박승현 e-mail : psh310@hanmail.net